

初·中等科學教育에의 期待役割과 展望

金相廈
大韓商工會議所

I

먼저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教育問題의 專門家도 아니고 또 科學技術分野에 대해 잘 알고 있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이용해서 企業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初·中等學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科學教育에 대해 느껴왔던 問題들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教育專門家가 아닌 企業人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教育理論에 부합되지 않거나 우리의 教育現場에서 직접 느끼는 狀況과 다소간 거리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괄목할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급속한 經濟成長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教育을 통하여 우수한 人力을 供給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共感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밖에서 우리 經濟의 成長要因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참가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지난 3월 태국의 쯔티엔에서 세계 教育會議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各國 代表들은 韓國 經濟의 오늘이 있게 한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써 효과적인 初·中等教育의 실시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름든 우리 經濟의 成長過程에서 教育이, 그중에서도 특히 産業人力 供給의

밑 바탕이 된 科學教育이 기여한 바가 대단히 컸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II

그러나 이렇게 成長을 거듭해 오던 우리 經濟가 작년부터 크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韓國이 龍에서 지렁이로 전락해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라든지 "너무 일찍 삼페인을 터뜨린 韓國" 등과 같은 外國言論의 표현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피부로 직접 느끼는 우리 經濟의 現實은 매우 어렵기만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經濟는 6.7%의 實質成長에 그쳐 81년의 5.9%의 成長이래 8년만에 최저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86-88년 사이의 연간 成長率인 12%내지 13%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經濟成長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도 74년 이래 처음으로 4%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經濟가 성장의 둔화와 함께 어려운 狀況에 놓이게 된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과 視覺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貨金과 生産性問題가 우리 경제의 成長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要素라고 생각합니다. 換率이나 선진국의 保護貿易障壁은 우리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所得分配의 불균형이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問題도 정책 방향에 따라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한 内部的 要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換率의 경우 86년 이후 3년간 우리 원화가 18.5% 評價切上된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日本은 71%, 대만은 35%나 절상되었습니다. 金利水準 또한 이들 경쟁 상대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해 그 격차가 특별히 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과 生産性的 경우에 있어서는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난 86년 이후 우리의 賃金引上率은 50%를 상회하였으나 生産性 향상은 19%에 그쳐 勞賃單價가 무려 31%나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때 日本은 같은 기간동안 勞動生産性이 19% 상승하고 임금인상률은 9%에 그침으로써 노임단가는 오히려 10%나 하락하였습니다. 대만 역시 30%의 임금인상률을 보이긴 하였지만 32%라는 큰

폭의 노동生産性 향상을 기록하여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 상승분을 하회하는 선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生産性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競爭力은 크게 약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企業의 生産性을 向上시킴으로써 탄탄한 成長基盤을 다져 나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企業의 生産性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技術과 人力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生産設備를 갖추어 놓았다고 해도 이를 가동할 수 있는 技術과 人力이 없이는 生産性이 향상될 수 없는 노릇입니다. 生産性 향상을 위한 技術과 人力의 확보는 初.中等學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科學教育에 의해 그 成敗가 결정된다고 보아도 크게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II

産業社會가 발전되고 成長전략이 변화하면 科學教育의 역할에 대한 企業의 기대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産業人力의 수요가 지금까지의 양적인 수요에서 질적인 수요로 바뀌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産業人力의 질적인 수준향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科學과 관련된 인적. 물적인 底邊擴大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스포츠에 있어서 선수층이 두텁지 않고서는 우수한 선수가 배출될 수 없는 이치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日本의 발명인구는 500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10만에 비해 무려 50배가 넘습니다. 兩國의 人口數를 감안해 보더라도 너무 큰 차이라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科學人力의 底邊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現代人이라면 지도자이건 평범한 시민이건, 科學技術분야에 종사하고 있건 그렇지 못하면간에 누구나 科學技術에 대한 인식과 어느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企業에 있으면서 흔히 겪게 되는 일입니다만 技術開發과 革新의 중요성에 대

해서는 最高經營者로 부터 現場勤勞者에 이르기까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놓고 토론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관리직과 技術職 사이에 對話가 斷切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技術職 근무자끼리도 전공분야가 다르면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科學이나 技術의 기본적인 概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受容能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용화에 성공한 技術개발의 약 80% 정도가 現場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모든 사람들이 평소 科學技術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眼目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科學的 사고 방식과 태도를 익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大韓商工會議所에서는 몇년 전부터 교직자, 공무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친 분들은 각자 학교에서, 직장에서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原理와 흐름을 학생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릴때 부터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원리에 익숙해지면 어른이 되어서도 合理的, 效率的 경제 행위를 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과학교육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초科學 教育過程에서는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初, 中等科學教育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교과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이론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科學에 관한 이론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活用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實生活와 연결된 生活 科學이 아닌 학문 중심의 教育이 學校에서 이루어지면 자칫 학생들이 科學自體에 대한 흥미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科學, 生活에 도움이 되는 科學, 産業 社會에 기여할 수 있는 科學教育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交通事故率은 세계 제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步行者나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모르고 질서지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습관이 어릴때 부터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學校에서 신호등을 구분하는 법이나 車道를 횡단하는 방법을 이론으로만 익혀서는 실천면에서 큰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의 모형을 설치해 놓고 직접 體驗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敎育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론 공부보다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주위의 환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처해 갈수 있는 적응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나라의 將來를 알려면 그 나라의 어린이용 科學商品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美國의 어느 經濟專門家は "어릴적부터 반도체 칩을 능숙하게 결합하여 기계를 만들어 내고 컴퓨터와 마주 앉아 씨름하는 日本 어린이들을 보니 참으로 美國의 장래가 한심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科學에 관심을 갖고 生活化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日本의 경우 어린이 科學展에 출품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커서도 그대로 科學界에 종사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學校敎育을 통해서 이들이 科學에 대한 관심을 중도에 버리지 않고 계속 素質을 開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 학생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등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로보트를 비롯한 갖가지의 모형품을 순서에 따라 다양하게 조립하면서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科學은 과정의 학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問題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끈질긴 탐구정신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敎育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러한 일이 왜 우리 科學敎育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위대한 발명은 現實性이 없어 보이는 空想과 想像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상상과 공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엉뚱한 생각이나 반응을 非正常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기발한 착상이나 호기심을 칭찬해 줌으로써 自信感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 있을지도 모를 제2의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을 바로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두가 반성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科學的 頭腦과 資質이 옛날부터 매우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민족에도 뒤지지 않을 素質과 재주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글이나 거북선 같은 뛰어난 과학적 창조물이라든지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사용했다는 測雨器와 金屬活字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素質이 그동안 충분히 發揚되어 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유교적 전통사회에서 명분을 내세운 空理空論이 앞섰기 때문에 實事求是의 實踐道德이 발달되지 못했던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學校教育을 통해 이러한 素質이 계발되지 못한다면 국제 경쟁에서 뒤질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입시에 성공할지 모르나 나라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재주 있고 과학적 센스가 있는 학생이 커 나갈수 있는 풍토를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IV

얼마전 國際學生成績評價委員會가 각 나라 학생들의 科學學力成就度를 평가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학생이 학력수준은 上位圈이었으나 중학생은 中位圈, 고등학생은 下位圈으로 점차 처지는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科學에서의 학력수준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教育의 고질적 병폐인 입시 위주의 教育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시 위주의 教育은 科學教育의 생명이랄 수 있는 實驗, 實習이 없는 注入式, 暗記式 教育입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日常生活을 營爲하려면 매사가 합리적인 결정 과정의 연속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결정이란 問題를 科學的으로 분석해서 해결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企業에 있으면서 科學的 素養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역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産業現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學校에서 入試를 위한 공부만 했지 原因과 結果를 분석해서 問題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實驗, 實習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國民學校부터 高等學校를 졸업할 때까지 10년이 넘는 科學教育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미경을 조작할 줄 모르고 온도계의 눈금도 제대로 읽지 못하며 간단한 원리의 주변기기 하나 조작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科學教育의 現實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産業現場에 진출했을 때 컴퓨터라면 손을 들어버리는가 하면, 직무와 관련해서 아이디어 하나 내놓지 못합니다. 암기식 教育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初. 中等學校에서의 實驗室과 教具確保率이 60%내지 7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教育與件으로 볼때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듯한 시설과 도구 없이도 生活周邊에서 얼마든지 實驗과 觀察의 대상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科學教育은 기존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찾는 방법을 아울러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현상이나 하찮은 물건이라도 다 나름대로의 必然性和 作動原理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습관을 익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론적 지식만을 측정하는 현행의 평가방법이 바뀌어져야 하겠습니다. 實驗, 實習, 實技의 능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教育專門家들께서 問題點을 검토해서 보완책을 찾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初. 中等科學教育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要因이 뿌리깊은 技術職 천시풍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자나 맹자를 찾아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먼 옛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꾼"이나 "쟁이"로 卑下하려 드는 風潮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깨끗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쾌적한 빌딩속에서 근무하는 것을 은근히 부러워 합니다. 現場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어찌저 젊잖아 보이지 않습니다. 儒敎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人文崇尚主義와 이에 따른 그릇된 직업관이 하루빨리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教育一線에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시절에 들은 선생님 말씀, 인상깊었던 일들은 평생토록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의 學校教育을 통해 왜 우리나라에 科學技術이 필요한지를 늘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기능직 근로자나 技術者들이 어떻게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래에 유능한 技術者가 되겠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투철한 匠人精神을 길러주지 않고서는 技術發達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産業基盤 技術의 하부구조가 취약합니다. 기계부품이 加工誤差가 선진국에 비해 100배, 自動車 鍍金의 내구성이 선진국의 5분의 1, 제품불량률이 선진국의 3배 수준인 10 -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技能. 技術 人力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풍토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技術大國이라 불리는 日本은 회사 중역중 技術職 출신의 비중이 40%에 달해 어느 선진국보다도 그 비중이 높습니다. 오늘날 日本이 누리고 있는 豊饒를 생각할때 많은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최근 우리나라도 科學技術系 대학입학자의 수준이 人文社會系 진학자 보다 우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에서도 職種間, 學力間 임급격차가 점차 해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사상의 차별적 관행 역시 철폐함으로써 기능직, 기술직 인력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學校教育에서 이러한 인식이 일찍부터 심어지지 않으면 기술직 천시 풍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初. 中等學校에서의 科學教育이 말아야 할 일종의 하나는 잘못된 우리의 思考方式을 바로 잡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을 가장 당황하게 하는 것이 "적당히 하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可否가 분명한 서양사람들로서는 理解가 잘 안가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조급성도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短時日 내에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일선의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의 成果가 조만간 나타나지 않으면 연구자도 경영자도 몹시 조바심을 냅니다. 따라서 깊이 있고 장시일이 소요되는 연구는 회피하려

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상품을 일본것과 비교할때 품질면에서도 차이가 날수 있지만 끝손질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물건은 잘 만들어 놓고서도 마무리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제 값을 못받는 다는 것입니다. 적당주의와 조급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學校教育을 통해서 투철한 과학정신을 심어줌으로써 "대충대충 빨리 끝내 버리고 말자"는 사고방식을 버리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V

政府에서는 오는 2000년까지 科學技術 투자액을 국민총생산의 5% 수준까지 끌어 올려서 세계 10位圈의 기술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科學入國은 政府의 의지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政府와 企業, 教育界가 다같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명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科學教育의 효과는 단기간내에 可視化 되기 어려우며 서서히 그 효과가 드러 납니다. 그만큼 투자에 대한 회임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投資가 소홀해 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初, 中等 科學教育은 모든 科學技術 발전의 모체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뿌리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입니다.

尖端技術分野에 投資하여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이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거액의 投資가 필요하고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요행히 한 두개의 尖端技術을 냈다고 해도 국민경제 전체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일회적인 것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基礎科學의 배경없이 尖端技術에 投資하는 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80년대 들어 경제력과 技術力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국방과 우주항공 등 巨大科學技術 과 순수과학연구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품화와 실용화에 직결되는 産業技術 開發을 등한히 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技術은 제쳐놓고 어렵고 큰 技術의 개발에만 매달렸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科學技術系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격감하여 연간 배출되는 인력중 科學技術者 보다 인문계 전공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88년 한해동안 배출된 工學博士의 55%가 외국인 이라는 점에서 알수 있듯이 창조적인 활동을 담당할 절대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을 위한 과학정책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산업부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조중등과학 교육을 생각해 보면 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을만 하다고 봅니다.

최근 訪韓한 바 있는 노벨의학상 審査委員會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노벨의학상 受賞者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 50년 후에나 가능할것"이라고 내다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노벨상 수상은 경제력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知的探究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역시 知的探究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50년 후에나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가 미처 보지 못한 특유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教育에 대한 뜨거운 정열, 보다 큰 성취를 원하는 왕성한 企業家 정신, 政府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初.中等學校에서의 바람직한 教育과 合一될 때 이 기간은 훨씬 당겨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산업일선에서, 학계에서, 국제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